



IWPG

2026 글로벌 여성평화 권고안

세계여성평화그룹

서론

여성의 평화구축 참여가 국제적으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리적, 사회적, 직업적, 제도적 맥락에 걸쳐 여성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검토할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평화와 불안정이라는 경험은 공식적인 제도와 분쟁 과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가족, 직장, 학교, 지역 환경 등 일상적인 현실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면, 평화가 어떻게 경험되는지, 어디에 장벽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맥락에서 어떤 형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지역적 목소리: 여성의 관점, 해결책 및 정책 권고”라는 주제로 *2026년 글로벌 여성 평화 포럼*을 개최했다. 2026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유럽, 미주, 남아시아/중동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션 구조는 지리적 위치와 시간대를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4개의 세션에 걸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은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을 파악하고, 경험과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공유하며,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의 우선적 행동 방안을 모색했다. 『*2026 글로벌 여성 평화 권고안*』은 이 과정을 통해 제시된 관점과 제안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공통된 견해와 특정 맥락에 따른 우려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여성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향후 대화와 행동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포럼에는 다양한 국가, 분야, 사회 계층에서 참여했다. 등록자 구성에는 정부 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국제 및 국내 비정부기구(NGO), 민간 부문, 연구 기관, 언론, 지역 사회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평화와 안보, 여성 및 성평등, 지역사회 및 사회 발전, 교육, 인권 및 정의, 건강과 웰빙, 청년, 문화 및 예술, 장애 및 포용,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러한 폭넓은 참여는 제도적, 전문적, 지역사회적 관점과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며 평화를 고찰할 수 있는 다채로운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번 포럼에는 4개 지역 세션을 통해 46개국에서 온 약 1070명의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참가자 통계에 따르면, 정부 기관 소속이 11%, 시민사회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소속이 56%, 학계 및 연구 기관 소속이 14%, 민간 부문 소속이 8%, 기타 부문 소속이 11%로 참가자들의 기관 및 전문적 배경은 매우 다양했다. 참가자의 49%는 리더십, 관리직 또는 기타 의사결정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실무자, 전문가, 학생, 그리고 특정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들이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광범위한 분야를 대표하여, 기관, 전문직 및 지역사회 맥락 전반에 걸친 평화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는 폭넓은 기반을 마련했다. 상세한 참가자 프로필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본 권고안의 주요 근거는 4차례의 포럼 세션에 걸쳐 진행된 소그룹 토론의 결과였으며, 패널 연사들이 제시한 관련 관점, 사례 및 실천 사례가 이를 보완했다. 제출된 기여 내용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우려 사항, 실용적인 접근 방식, 공감대 형성 분야, 그리고 제안된 행동 분야를 도출했다. 정리 및 편집 과정 전반에 걸쳐 중립적이고 증거 중심의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포럼 기간 동안 공유된 개별 관점과 실천 사례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통합 권고안과 명확히 구분했다.

4 개의 세션은 각기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분쟁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국가 및 지역사회의 관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아우르는 기여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맥락에 특화된 우려 사항과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명확한 공감대 영역이 모두 확인되었다. 제시된 관점들은 전체 지역의 대표적 입장이기보다는 포럼 참가자들의 경험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지만, 서로 다른 맥락에서 공통된 우려 사항, 우선순위, 제안된 대응 방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점은 공동의 행동 방향을 도출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따라서 본 분석은 기여 내용의 실질적 내용과 반복성에 주된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별 세션을 활용하여 특정 이슈들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표현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권고안은 포럼 전반에 걸쳐 가장 일관되게 제기된 우선순위와 제안된 조치들을 종합하고, 이를 주로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별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포럼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정부, 국제기구 및 개발 파트너, 시민사회단체, 교육 기관, 지역 사회 및 지역 지도자 등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체들과 연결해 준다.

이해관계자 기반 권고안 외에도, 분석 결과 분쟁 영향을 받는 지역은 상호 연결된 평화와 회복 과제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들은 맥락적 통찰로서 별도로 제시되어, 주요 이해관계자 기반 구조를 보완한다.

이러한 분석적 접근 방식을 통해 본 권고안은 공통된 틀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야와 맥락별 관점을 통합한다. 본 권고안은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교육 기관, 지역사회 주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추가적인 대화, 협력 및 행동을 위한 공통된 기준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해관계자 범주

본 보고서의 목적상, 이해관계자 범주는 권고안과 관련된 주요 역할 및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분류로 사용된다. 이러한 범주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일부 주체는 그 기능과 활동 분야에 따라 하나 이상의 범주에 걸쳐 활동할 수 있다.

- **정부:** 정책, 입법, 공공 행정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당국, 부처, 공공기관 및 기타 국가 기관.
- **국제기구 및 개발 파트너:** 유엔 산하 기구, 정부 간 및 지역 기구, 양자 및 다자간 개발 기관, 원조 기관, 그리고 정책, 기술, 재정 또는 조정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개발 파트너.
- **시민사회 조직:** 비정부기구, 여성 단체, 지역사회 기반 단체, 옹호 단체 및 평화 구축, 권리, 개발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기타 시민사회 조직을 포함한 조직화된 비국가 행위자.
- **교육 기관:** 학교, 대학, 전문대학, 훈련 기관 및 교육, 학습, 기술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타 기관.
- **지역사회 및 지역 지도자:** 전통 및 종교 지도자, 지역사회 대표, 풀뿌리 지도자, 그리고 대화, 참여, 사회적 결속 및 지역사회 활동에 기여하는 기타 지역 행위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및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지도부 구조를 말한다.

제 1 장. 주체별 권고 사항

1. 정부

1.1.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

1.1.1. 국가 정부는 평화와 안보에 관한 의사 결정에 여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상징적인 대표성을 넘어 정책 및 자원 배분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2. 지방 정부는 소외된 지역사회 출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지역 계획 및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고 제도화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이 지역사회 우선순위를 지방 당국에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계획 포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포럼 사례 | 인도네시아 무스레나(Musrena)

지역 계획 수립에 대한 여성의 참여 제도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의 무스레나(Musrena; 여성 및 아동 행동 계획 포럼)를 지방 거버넌스 참여의 제도화된 사례로 꼽았다. 이 공식적인 연례 계획 포럼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지역 사회의 우선순위를 지방 정부에 직접 제시할 수 있다. 정부 규정을 통해 제도화된 이 메커니즘은 여성 및 기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계획 및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제공한다.

포럼에서의 관점 포럼 전반에 걸쳐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 필요성이 대두된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토론에서는 여성의 형식적 또는 상징적 대표성과 정책, 의사결정, 자원 배분에 대한 실제 영향력 사이의 격차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토론에서는 여성과 소외 계층이 지방 정부의 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의 무스레나 모델을 비롯한, 지역 차원에서 제도화된 참여 메커니즘이 부각되었다.

1.2. 성별 기반 폭력(GBV)의 예방 및 대응

1.2.1. 각국 정부는 성별 기반 폭력(GBV)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적·정책적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2.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의료 서비스, 법률 지원, 정신 건강 및 트라우마 지원, 안전한 신고 체계,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성별 기반 폭력 생존자를 위한 접근성이 높고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포럼에서의 관점 포럼 전반에 걸쳐 성별 기반 폭력은 공통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며, 4 개 지역 세션에 걸친 논의에서는 예방 및 대응의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측면들이 부각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교육 및 인식 제고를 통한 조기 예방과 더불어, 생존자를 위한 접근성이 보장된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강조했다. 아프리카 및 유럽 세션에서는 특히 폭력과 분쟁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회복과 보건, 법률, 심리사회적, 사회적 지원의 조화로운 제공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미주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 광범위한 성 불평등 및 차별 양상과 연결 지으며, 권리, 치유,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 남아시아 및 중동 세션에서는 분쟁, 빈곤, 강제 이주, 취약한 제도적 보호가 어떻게 성별 기반 폭력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정의 실현 및 지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3. 교육을 통한 평화, 성평등 및 폭력 예방

1.3.1. **각국 정부**는 어린 시절부터 평화, 성평등, 상호 존중, 비폭력적 갈등 해결을 교육 정책 및 교육 과정에 통합해야 하며, 여기에는 '상호 존중 관계 교육'과 같은 접근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1.3.2.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상호 존중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이 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평화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방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3.3.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학교, 시민사회단체, 지역 사회 지도자, 실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평화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포럼 사례 | 호주의 '존중하는 관계 교육'

교육을 통한 폭력 예방

아시아-태평양 세션 참가자들은 어린 때부터 성별 기반 폭력을 예방하는 데 교육을 활용한 사례로 호주의 '존중하는 관계 교육'을 꼽았다. 이 접근 방식은 학교를 존중하는 관계와 성평등을 증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 예방을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포럼에서의 관점 평화 및 예방 교육은 아시아-태평양 세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주제였으며, 참가자들은 조기 개입, 존중하는 관계, 지역사회 기반 교육, 그리고 어린 때부터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가치와 행동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학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1.4. 여성의 회복 및 사회경제적 참여 지원

1.4.1.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분쟁, 강제 이주, 폭력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을 위한 정신 건강 및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강제 이주 및 분쟁 영향을 받은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과 정신 건강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4.2.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의료 및 보육, 특히 모성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필수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장벽을 줄여야 한다.

- 1.4.3. **중앙 정부**는 특히 분쟁, 강제 이주 및 빈곤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을 위해, 여성의 취업 경로, 생계 기회, 재정 지원 및 여성 주도 사업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포럼에서의 관점 아프리카/유럽 세션 참가자들은 분쟁과 강제 이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회복과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정신 건강 지원, 안전한 공간, 언어 지원, 취업 경로, 육아 지원은 여성의 회복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상호 연결된 지원 형태로 부각되었다.

2.국제기구

2.1. 평화 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및 리더십 지원

- 2.1.1. **국제 기구**는 여성들이 지역 평화 포럼, 재난 회복력 계획, 기후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평화 과정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

- 2.1.2. **국제 기구**는 여성들의 기술과 자신감을 강화하는 리더십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며, 여기에는 대중 연설, 옹호 활동, 지역사회 조직화 훈련은 물론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 의사 결정 및 리더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2.2. 기층 여성 평화 구축자들을 위한 유연한 자금 지원 및 제도적 지원

- 2.2.1. **국제 기구**는 보호 서비스, 생계 프로그램, 풀뿌리 평화 교육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풀뿌리 여성 평화 구축가들과 여성 단체들을 위해 유연한 자금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3. 평화 교육 및 안전한 지역사회 공간 지원

- 2.3.1. **국제 기구**는 미래의 평화 지도자로 성장할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풀뿌리 및 지역사회 기반의 평화 교육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야 한다.

- 2.3.2. **국제 기구**는 교육 기관과 지역 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지원하여 평화 도서관 및 평화 허브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평화 교육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2.4. 평화 대화에 다양한 여성들의 포용

- 2.4.1. **국제 기구**는 도시 및 대학 소속 여성들에 국한되지 않고, 농촌 여성, 원주민 여성, 이주 여성, 근로 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이 평화 대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포럼에서의 관점 토론에서는 국제 기구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부각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여성 단체를 위한 유연한 자금 지원, 풀뿌리 평화 구축, 안전한 참여 메커니즘, 평화 도서관 및 평화 허브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공간을 포함하여 풀뿌리 평화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특히 강조했다. 미주 세션에서는 농촌, 원주민, 아프리카계, 이주,

근로 여성 및 장애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들이 평화 대화와 더 광범위한 평화 구축 노력에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남아시아 및 중동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여성을 위한 리더십 및 시민 교육과 법적 조언, 안전한 신고, 중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메커니즘을 포함한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3. 시민사회단체(CSOs)

3.1. 풀뿌리 평화 구축 및 여성 권리 옹호

3.1.1. 시민사회단체는 인식 제고,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등 풀뿌리 활동을 통해 평화와 여성의 권리가 일상적인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3.1.2. 시민사회단체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평화적으로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리더십, 안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포럼 사례 | 브라질 ‘디스키 데누시아 물레르’

지역사회에 여성의 권리와 지원을 전달하다

브라질 시민사회단체인 모브ihu 연구소가 SESI Cidadania 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디스키 데누시아 물레르(Disque Denúncia Mulher)’ 프로젝트는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직접 정보,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방문 활동을 통해 여성 권리와 이용 가능한 보호 장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폭력이 심화되기 전에 여성들이 도움을 구하도록 독려한다.

3.2. 여성을 위한 안전한 공간, 지원 및 치유

3.2.1. 시민사회단체는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을 위해,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쉼터, 모임 장소, 지원 플랫폼 등을 포함한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포럼 사례 | ‘여성의 창’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위한 공간 조성

아시아-태평양 세션의 한 참가자는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창간된 잡지인 ‘여성의 창(Window of Women)’을 소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접근성이 높고 지역사회 기반의 플랫폼이 어떻게 여성들에게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치유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3.3. 분쟁 영향 지역에서의 예술 기반 치유와 회복

3.3.1. 시민사회단체는 분쟁의 영향을 받은 아동과 가족이 치유되고, 자신을 표현하며, 더 평화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창의적이고 예술 기반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포럼 사례 | 우크라이나 헤르손 예술 학교

분쟁 및 강제 이주 상황에서의 예술 기반 회복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강제 이주 이후, 헤르손 미술 학교는 온라인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각지에 흩어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과 소통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 그리기와 창의적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평화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가자들은 이 접근 방식을 다른 분쟁 영향 지역 및 강제 이주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꼽았다.

3.4. 풀뿌리 평화 교육 및 청소년 참여

3.4.1.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미래의 평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풀뿌리 평화 교육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포럼에서의 관점 포럼 전반에 걸쳐 진행된 토론에서는 평화 구축 원칙을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생존자를 위한 쉼터 및 지원 플랫폼은 물론, 청소년을 미래의 평화 지도자로 양성하는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기반 대응 방안과 풀뿌리 평화 교육을 강조했다. 아프리카 및 유럽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지역 사회와의 소통, 여성 인권 인식 제고, 예술을 통한 치유 및 회복을 강조했으며, 여기에는 분쟁의 영향을 받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젝트와 창의적인 활동도 포함되었다. 미주 세션에서는 서클, 예술 공간, 스토리텔링 포럼, 치유 워크숍 등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서적 치유를 도모할 수 있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공간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4. 교육 기관

4.1. 평화 교육 및 청소년 개발

4.1.1. 교육 기관은 평화적 갈등 해결 및 비폭력 의사소통에 관한 프로그램, 평화 미술 경연 대회와 같은 활동, 그리고 여성을 평화 교육자로 양성할 기회를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평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포럼의 사례 | 멕시코 IWPG-UJAT 모델

대학 생활에 평화 교육 통합하기

타바스코 후아레스 자치대학교(UJAT; Universidad Juárez Autónoma de Tabasco)의 IWPG-UJAT 모델은 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해 평화 교육을 대학 생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UJAT은 IWPG-UJAT 평화위원회를 통해 여성 대상 평화 교육과 평화 강사 양성을 실시하는 한편, 중재 기술과 평화 철학을 갖춘 학생 변화 주도자들을 양성해 왔다. 또한 평화 구축 활동은 대화, 평화로운 공존, 학생 참여를 장려하는 캠퍼스 내 문화·교육·사회 활동을 통해 정규 교육의 범위를 넘어 확장되었다.

4.2. 평화와 여성의 목소리를 위한 안전하고 참여적인 공간

4.2.1. 교육 기관은 평화 대화와 여성의 목소리를 위한 안전하고 참여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평화 도서관과 평화 허브는 물론,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임, 예술 공간, 이야기 나눔 포럼 등이 포함된다.

4.3. 교육 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

4.3.1. 교육 기관은 지역사회 차원의 평화 구축과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5. 지역사회 및 지역 지도자들

5.1. 지역사회 기반 폭력 예방 및 사회적 규범 변화

5.1.1. 지역사회 및 지역 지도자는 갈등 해결 기술, 감정 표현, 비폭력적 의사소통을 장려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유해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해야 한다.

포럼 사례 | '동남아시아 여성 건강(WHISE)', 호주

지역사회 기반 성별 기반 폭력 예방

아시아-태평양 세션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기반 예방의 사례로 호주의 '동남아시아 여성 건강(WHISE)'과 이 단체가 주관하는 '성별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16 일 캠페인'을 주목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 참여, 교육, 스토리텔링,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존중, 평등, 폭력 예방에 관한 대화를 장려한다. 참가자들은 유사한 접근 방식이 지역 문화적 맥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지도자, 단체, 그리고 실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2.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5.2.1. 지역사회 및 지역 지도자는 지역 평화 포럼, 재난 회복력 계획, 기후 행동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지역 지도부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포럼 사례 | 요르단의 여성 지역사회 보호 위원회

여성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보호 및 참여

요르단의 분쟁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서, 지역 여성들은 성별 기반 폭력 및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해 안전한 신고 경로, 법적 조언, 지역사회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 지역사회 보호 위원회'를 결성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의사 결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민 교육 워크숍을 주최하고 있다.

포럼에서의 관점 포럼 전반에 걸쳐, 지역 사회 및 지역 지도자들이 지역 차원의 관계 형성, 사회적 규범, 참여에 미치는 역할이 논의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미주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가족 및 지역사회 내 갈등 해결 기술, 감정 표현, 비폭력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폭력 예방과 사회적 규범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세션에서는 지역 평화 포럼, 재난 회복력 계획, 기후 행동 등을 포함하여 지역 의사 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지원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지도부의 역할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아프리카/유럽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여성의 권리와 평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며 리더십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 2 장. 맥락적 분석

분쟁 영향 지역의 관점

앞서 제시된 권고사항들은 주로 포럼의 소그룹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지만, 본 장에서는 분쟁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 대해 다른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과 소그룹 토론 내용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추가적인 맥락적 분석을 제공한다. 이러한 통합 분석을 통해 분쟁이 여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패턴이 드러났다. 참가자들과 발표자들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강제 이주, 트라우마 및 심리사회적 필요, 경제적 불안정, 약화된 사회적 결속력과 신뢰, 그리고 참여 장벽과 어떻게 밀접하게 얽혀 있는지를 강조했다. 그들의 발언은 회복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만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분쟁의 유산을 해결하고, 여성들이 화해, 의사결정, 평화구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호 연계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1. 통합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

- 1.1. 분쟁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의 평화 구축 및 회복 노력은 보호, 심리사회적 회복, 필수 서비스, 경제적 회복을 상호 연결된 필요 사항으로 다루는 통합적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트라우마 지원, 의료 서비스, 생계 회복, 그리고 분쟁과 강제 이주로 영향을 받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교육 및 고용 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평화, 화해 및 회복 과정에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

- 2.1. 분쟁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평화 협상, 화해, 과도기적 정의, 회복 과정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자로서 참여해야 하며, 여기에는 평화 및 중재 기구, 지역 대화 메커니즘, 진실·화해·분쟁 후 회복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공식적 대표권 확보를 통한 참여도 포함된다.

3. 지역사회 신뢰 구축 및 사회적 결속

- 3.1. 분쟁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의 평화 구축은 여성 주도 대화 및 중재, 지역 여성 대화 모임, 혐오 발언 및 양극화 방지 이니셔티브, 청소년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분쟁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교류, 그리고 협력과 평화적 공존을 촉진하는 지역 주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신뢰와 사회적 관계 재건에 투자해야 한다.

4. 진실, 과도기적 정의, 화해

- 4.1. 분쟁 후 평화구축은 폭력 종식을 넘어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재건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위한 안전한 공간, 성평등에 부합하는 진실 및 화해 메커니즘, 법적 및 심리사회적 지원, 배상 및 재할, 그리고 직업 훈련,

여성 협동조합, 소액 금융, 피해 지역사회 간 공동 경제 프로젝트와 같은 회복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

포럼에서 제안된 접근 방식 | 예멘 국가 화해를 위한 페미니스트 로드맵

신뢰, 정의, 참여, 회복의 연계

예멘에서 제시된 페미니스트 로드맵은 신뢰 구축, 진실과 인정, 과도기적 정의, 여성의 평등한 정치적 참여, 지역사회 회복을 연결하는 국가 화해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제안된 메커니즘에는 대화 및 중재 훈련을 받은 여성 평화 대사들의 전국 네트워크, 지역 여성 대화 모임,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진실 및 화해 기구 내 여성 대표성 확보, 생존자를 위한 법적·심리사회적 지원, 그리고 여성과 분쟁 피해 지역사회를 위한 경제 회복 이니셔티브 등이 포함되었다.

신뢰 구축 → 진실 및 인정 → 과도기적 정의 → 여성의 평등한 정치 참여 → 회복 및 사회 구조 재건

결론

포럼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과 부문에 걸친 조율된 행동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참가자들은 각 지역의 다양한 현실과 우선순위를 반영했으나,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 폭력 예방, 평화 및 예방 교육, 회복과 사회적 지원, 그리고 평화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접근 방식의 중요성 등 공통된 주제들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단편적인 개입만으로는 진전될 수 없으며, 여성이 평화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상호 연결된 사회적, 제도적, 지역사회적 여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교육 기관, 지역사회 및 지역 지도자들은 이 과정에서 각기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사항은 단일 책임 영역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책, 제도적 지원, 교육, 지역사회 참여, 보호, 회복이 서로를 강화할 수 있는 공유된 틀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 지역사회 차원의 여성들의 경험과 우선순위를 더 광범위한 정책 및 제도적 과정과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토론 전반에 걸쳐 참가자들은 또한 다양한 맥락에서 이러한 권고 사항이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려 사항들을 강조했다.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분쟁, 강제 이주, 폭력, 장애, 지리적 고립, 기타 형태의 사회적·경제적 소외로 인해 포용에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평화 구축에 대한 접근 방식은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현실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서 공유된 경험들은 국가와 지역사회 간에 서로 배우는 것의 가치를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관행을 단순히 복제해서는 안 되고, 현지 주체들과 실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개별 권고 사항을 넘어, 이번 포럼은 다양한 지리적, 사회적, 직업적, 제도적 맥락에서 나온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한데 모으는 것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특정 지역사회 내에서 평화와 불안정을 경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현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려 사항과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직업, 제도적 차원에서 여성들이 겪는 경험이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논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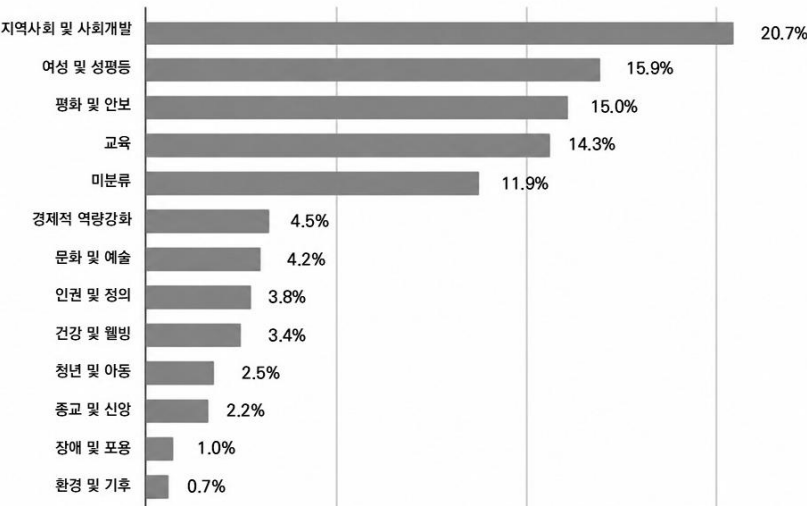
따라서 본 보고서의 권고 사항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단일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닌, 포럼 전반에 걸쳐 표출된 다양한 경험, 실천, 관점에 기반한 공통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본 권고안은 향후 정책 대화, 제도적 협력, 그리고 현지 상황에 맞춘 행동의 토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험과 우선순위를 국가, 지역, 국제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과 연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본 권고안이 평화에 대한 보다 포용적이고, 대응력이 뛰어나며,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의 개발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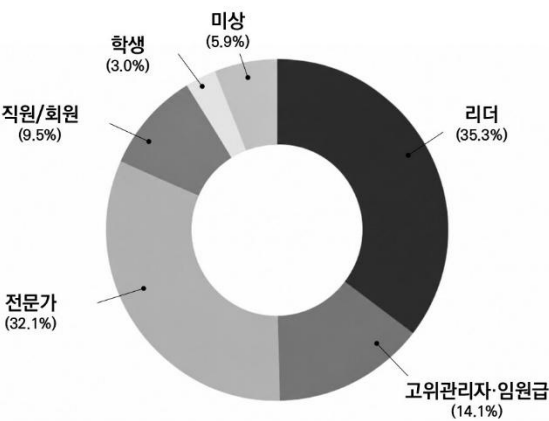
참가자 국가 분포

아프가니스탄	콩고 민주 공화국	요르단	미얀마	동티모르
호주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프랑스	케냐	파키스탄	미국
볼리비아	독일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필리핀	베네수엘라
부르키나파소	과테말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예멘
부룬디	온두라스	마다가스카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카메룬	인도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스리랑카	
콜롬비아	이라크	몽골	수단	
체코	일본	모로코	탄자니아	

참가자 소속 분야 키워드 분포



참가자 직책 유형 분포





IWPG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 글로벌커뮤니케이션국(DGC)에 등록된 국제 비정부기구(NGO)입니다. IWPG는 여성이 평화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평화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전 세계 여성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평화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이를 일상 속의 평화문화와 지속가능한 제도로 확장하는 통합적 평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일상에서 시작된 평화가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로 확산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럼의 주최기관으로서 IWPG는 포럼을 통해 도출된 주요 논의와 권고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럼에서 공유된 다양한 관점과 제안을 여성의 참여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둘러싼 국가·지역·국제 차원의 논의와 연결함으로써, 현장에 기반한 목소리가 보다 폭넓은 평화 담론과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IWPG는 보다 포용적이고 지역의 현실에 기반한 평화 접근을 확산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실질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